

01 교회소식

페루·콜롬비아 선교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활발히 이뤄지는 남미 선교, 최근 이희선 목사 손수건 집회를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02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가상철언(3)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상철언을 명심하여 부지런히 신부단장을 마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03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

응답과 축복의 글로벌 축제!

전 세계 만민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던 지난 3년간의 수련회를 되돌아본다.

04 특집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풍성해요”

만민 하계수련회는 최상의 날씨 가운데 응답받고 치료받으며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의 종합선물세트이다.

만민뉴스

제749호 2016년 7월 3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열정의 나라 남미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이희선 목사 초청 페루·콜롬비아 손수건 집회



우리 교회의 남미 선교는 1996년 7월,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강사로 초청된 ‘아르헨티나 한인 축복대성회’를 시작으로 가시화되었다. 성회 당시 이 목사의 환자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아 영광 돌렸으며, 현지 ‘목회자 세미나’도 병행되어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회 성장의 비결’을 전했다.

이 세미나에서 은혜받은 목회자들의 강청으로 1997년 10월에는 ‘제2회 아르헨티나 목회자 세미나 및 부흥성회’를 인도하였고, 이틀간 연인원 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쳐졌다(사진 2).

더욱이 2004년에는 페루의 수도 리마 시 캄보 데 마르데 공원에서 50여 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이재록 목사 초청 페루 연합대성회’가 열렸다(사진 1, 성회 전 당시 페루 대통령과의 환담).

성회 시 나타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로 무수한 사람이 치료받고 개종하였으며 이는 페루 기독교 사상 최대의 성회로 기록되었다. 이후 남미에만 페루만민교회를 비롯한 670여 개 지·협력교회가 세워

졌다. 또한 중남미 최대 기독교방송인 엔라쎬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설교가 중남미 전역에 방송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은혜받고 권능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중남미 선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월,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사진 5)는 남미 지교회 두 곳에서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집회를 인도하였다(사진 3, 4, 6~10).

14일, 페루만민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시 설교 후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자 3년간 말을 못하던 여아가 말문이 열렸고, 선천적으로 혈우병을 앓던 남아가 치료되었다. 이 외에도 시력과 청력의 회복, 백내장, 고혈압, 갑상선 등 수많은 질병이 치료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16일에는 콜롬비아 엔라쎬 방송 사장 부부와 만남을 가졌다. 로살바 로드리게스 데 링곤 사장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흠 없는 성결의 복음과 만민의 뛰어난 기독교 문화 등 GCN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고 질병 치료와 축복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했다.

17일에는 엔라쎬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설교에 은혜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콜롬비아만민교회 창립 4주년 기념예배가 있었다. 이날 이희선 목사의 손수건 기도로 까팔리나 꼬레도르 성도는 10년, 까롤리나 가르시아 에레라 성

도는 20년 된 근시와 난시를, 노라 차빠노 성도는 30년 된 시력 저하를 치료받았다. 이 밖에도 40년 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고혈압 등 페루에서와 같이 수많은 질병이 치료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말씀과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하시며, 사랑과 권능으로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20년 만에 안경 없이 생활하니 꿈만 같아요”



까롤리나 가르시아 에레라 (29세, 콜롬비아만민교회)

난시와 근시로 인해 저는 9세 때부터 안경을 늘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아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님이 오셔서 손수건 집회(행 19:11~12)를 인도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저는 사모함으로 직장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했고 창립 행사를 위해 성전 꾸미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리라는 믿음으로 3일 금식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7월 17일 창립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 당일, 이희선 목사님은 설교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을 제 양쪽 눈 위에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양쪽 눈이 타는 듯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당시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기도가 마쳐진 뒤 눈앞이 흐리게 보여 안경을 벗었더니 모든 것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상칠언(3)



당회장 이재록 목사

“제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
(마태복음 27:46)
“이후에 예수께서 ...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
(요한복음 19:28~30)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기신 일곱 가지 말씀이 바로 가상칠언(架上七言)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찌하든 영적인 생명을 심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상칠언 중 제 4~6 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 4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는데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거나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 탄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당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여섯 시간 동안이나 피를 흘리셨습니다(막 15:25~34). 소리 지르실 만한 기운이 남아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힘을 다해 큰 소리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했을까? 왜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야만 했는가?’를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운명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이지요. 이런 의미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 외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 주셨건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알아서 구세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버림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마음 중심에서 믿는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를 열심히 전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 5연 “내가 목마르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을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상태였으니 얼마나 목마르셨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갈증을 호소하시고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핏값을 찾아 드림으로 그 갈증을 해소시켜 달라고 당부하시는 영적인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핏값을 찾아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까닭은 죄인 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찾아드리려는 것은 바로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열심히 전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전도하는 것 외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나 선교를 위해 물질로 심는 것 등 간접적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니 어떤 사람이 해움에 적신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어 드렸습니다. 이때 신 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갈증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시 69:21)대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시고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오래되어 묵은 신 포도주는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며, 새 포도주는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 신약의 사랑의 법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은 반드시 죄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하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곧 우리를 위해 신 포도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믿고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자 신 포도주를 입에 대신 것입니다.

제 6연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전반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했는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류 구속의 섭리를 다 이루셨으며 곧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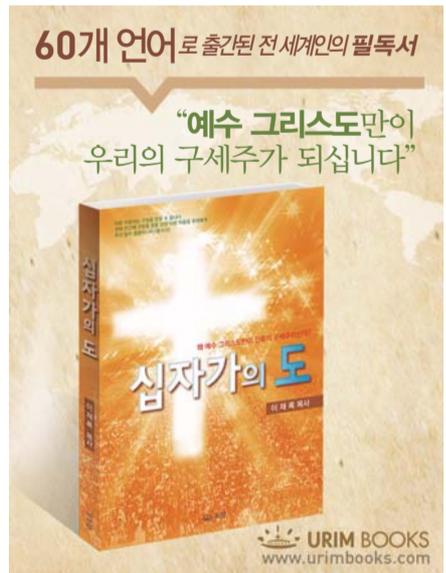
율법에 따르면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므로 모든 죄인이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매번 소나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단번에 대속하셨습니다(히 7:27).

이처럼 예수님의 대속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손에 잡혀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며 손발에 못 박히는 모든 고통을 당하신 후 완전히 죽었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류를 주관하던 원수 마귀사단의 사망권세가 깨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루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으니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을 닮은 온전한 성결이며 온전한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 영적인 사랑, 팔복을 이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지런히 신부단장을 마치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때 “다 이루었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상칠언의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겨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며 장차 천국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처소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4면에서 계속

신뢰가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

2013년 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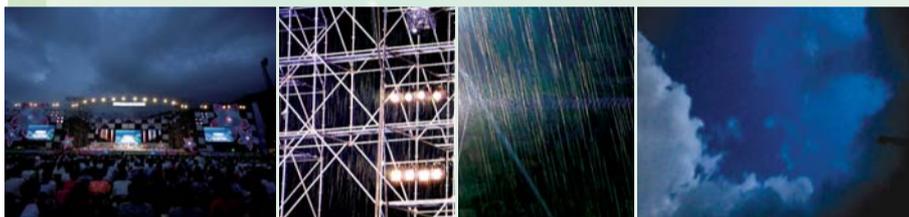
2013년 8월 5일 저녁 교육 시간, 온통 두꺼운 구름으로 덮여있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빗줄기는 점차 굵어졌다.



이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본격적인 말씀 증거에 앞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좋은 날씨로 역사해 주옵소서. 비를 머금은 구름들아! 즉시 물러갈지니라! 아버지, 맑은 구름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별들로도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야 벗어나! 빛이여 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했다.

그러자 수련회장 위의 하늘만 마치 구멍이 뻥 뚫린 듯 구름이 갈라졌고 푸른 하늘이 보였다. 놀랍게도 집회가 마칠 때까지 그 구름이 합쳐지지 않으니 비가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명한 하늘에는 밤이 깊어지자 초롱초롱한 별빛이 눈에 띄었다.

하늘을 덮고 있던 두꺼운 구름이 갈라진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이후 서너 시간 동안 다시 합쳐지지 않은 것도 놀라운 기사이다. 또한 교육 시간 동안 사랑살랑 바람이 불어주어 살짝 젖었던 옷들도 금세 말랐다.



이처럼 놀라운 기사를 체험한 성도들은 믿음이 한층 더해졌고, 교육 후 환자를 위한 전체 기도를 통해 수많은 성도가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말레이시아 페낭만민농아교회 ‘스켈라’는 당시 만 한 살이였다. 스켈라의 부모는 농아이어서 어린 딸만은 농아가 아니기를 바랐지만, 병원 검사 결과 스켈라 역시 농아였다. 그럼에도 부모는 실망하지 않고 한국에서 열리는 수련회에 참석하면 딸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마침내 2013년 8월 5일 수련회 첫날 교육 시 환자기도가 끝나자 그동안 듣지 못하던 어린 딸이 소리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뭉가를 물으면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뒤에서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았다. 스켈라의 엄마는 딸을 안고 단에 올라와 눈물을 흘리며 딸이 치료받은 사실을 간증했다.

대구만민교회 전재수 집사(70세)는 척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지난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회개한 후 수련회를 참석하였다. 첫날 교육 시간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을 때 놀랍게도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이 일시에 사라졌다.



수련회를 마친 후 치료의 확신을 가지고 병원에 간 그에게 의사는 “어찌 된 일인지 암 덩어리가 작아져서 거의 없네요. 기적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일 아침이면 일찍 교회에 나와 성전 청소를 하고, 매일 자신의 성결은 물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기고 있다.

신뢰가 참임을 증명했던 -

2014년 수련회



2014년 8월 4일 수련회 첫날, 우리 교회 행사 시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도착예배와 저녁 교육 시간에 비가 계속 내린 것이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말씀을 경청했다.

오히려 ‘이 비는 나를 위해 흘리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자의 눈물’이라 생각하며 은혜가 더했다. 또한 폭우를 고스란히 맞으면서도 회중이 전혀 요동치 않아 결국 무수한 사람이 치료받아 더 크게 영광 돌렸던 ‘2002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를 떠올리며 감동 속에 기뻐했다.

그 당시 기뻐하며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인 듯했으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비가 오는 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변함없이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바였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자가 얼마나 이러한 믿음에 가까운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다.

2013년 하계수련회 시 오던 비를 멈추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2014년에 비를 맞으며 공의를 채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다. 그만큼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했기에 하나님께서도 더 깊은 차원의 사랑으로 영육 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영적으로는 신뢰와 사랑을 쌓는 기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육적으로는 많은 질병의 치료와 문제 해결의 응답을 주셨다.



이고르 바실로프 목사(핀란드 유바스폴라 축복교회 담임)는 “그 머리 밑에 그 제자가 있다는 러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 밑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수련회 첫날 많은 사람이 비가 오는 가운데도 끝까지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또 강사님이 빗속에서도 모든 순서가 마쳐질 때까지 성도들과 함께하셨는데 이러한 목회자가 전 세계에 또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마치 모두가 믿음의 테스트에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라며 당시를 회고했다.



8 2016 SUMMER 7/31~ 8/6

주요 프로그램 안내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신뢰 - 천국 49-50
- 선 14 - 3차 영혼육 5-9
- 십자가의 도 2-6
- 요한계시록 강해 1-5
- 창세기 강해 85-89
- 요한일서 강해 30-35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2-7

GCN TV설교

- 믿음으로 걸어온 길 (이수진 목사)
- 지혜 4 (이미영 목사)
- 막달라 마리아 1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52 (이희선 목사)
- 믿음의 분량 2 (신동호 목사)
- 열 재앙 19 (정구영 목사)
- 위로부터 난 지혜 6 (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21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61
- 내 마음의 찬양 28
- 창조와 과학 6
- 모두 드려요 53
- 즐거운 요리 8
- English 7
- 뷰티풀 라이프 9
- 옛날 옛적에 3

해외성회 및 교육

- 인도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7
- 회상 시즌2 9

GCN HD 채널 kt alleh tv 882번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여름이 되면 GCN방송으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전 세계 만민의 가족이 함께 모여 하계수련회를 한다. 지난 3년간의 수련회를 통해 전 성도가 체험한 하나님께 속한 권능(시 62:11)의 역사를 되새겨보며 곧 다가오는 '2016 만민 하계수련회'를 기대해 본다.

보물찾기 하듯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던 -

2015년 수련회



증을 비롯해 많은 불치병이 치료됐고, 해외에서 참석한 28명의 농아 가운데 27명의 귀가 열려 소리를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밤파 셀라 오메르 성도(65세)는 '에이즈' 판정을 받고 몸이 날로 쇠약해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걸을 수도 없었다.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던 그는 2014년 10월부터 킨샤사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GCN 녹화방송을 통해 '2015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였다. 화상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을 때 온몸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졌고 모든 증상이 사라져 건강을 되찾았다.



2015년 8월 3일, 수련회 첫날부터 해 주변에 원형무지개를 띄워주심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령 충만하게 일정을 시작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수련회 기간 동안 시원한 바람을 통한 기사(奇事)로 최적의 기운을 조성해 주셨다. 전국적인 폭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폭염특보가 발효됐으나 수련회장은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 수시로 불어와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며 쾌적한 날씨를 유지시켜 주었다.

또한 매년 그러했듯이 모기와 해충 등을 박멸하고 친근히 우리 몸에 내려와 앉는 잠자리 떼와 갖가지 형상을 수놓은 구름의 움직임, 각종 모임의 은혜와 감동 등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를 곳곳에서 보며 성도들은 행복해했다.

뿐만 아니라 은사집회 시에는 각종 암과 피부병, 디스크, 골절, 통증 치료를 비롯 시력, 청력이 회복되고 휠체어와 목발을 버리고 걷게 되는 등 수많은 성도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단을 가득 메웠다(아래 사진). 자폐

오늘날은 하나님을 멀리하여 죄악이 관영하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무수히 보여 주셨고, 근본 된 선과 사랑 또한 보고보고 또 보게 하셨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꺾고 '성결한 마음, 아름다운 영과 온 영의 마음을 이뤄 하나님과 주님의 기쁨, 목자의 힘이 되리라.' 다짐하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히 10:22)을 향해 정진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신뢰와 사랑을 더해진 만민 하계수련회를 통해 국내외 성도들은 본격적인 제3도약기의 영적 장수로 나와 마지막 때 전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힘차게 이뤄갈 것이다. 주 안에서 축복의 대폭발로 역사될 '2016 만민 하계수련회'가 더욱 기대된다.



3면에 계속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찬양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사산만민교회 충남 사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